

“역시 양봉업자” 손흥민 도르트문트 상대 16호골

최근 4경기 연속골...다음달 6일 원정 2차전



손흥민(도르트넴)이 1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독일)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0-0으로 팽팽한 후반 2분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기록했다.

양봉업자' 다웠다.

손흥민(도르트넴)이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첫 골을 터뜨렸다. 4경기 연속골로 시즌 16번째 골을 신고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의 골네트를 가르며 천적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손흥민은 14일 오전 5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의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0-0으로 팽팽한 후반 2분 균형을 깨는 선제골을 기록했다. 도르트넴은 3-0 완승을 거두면서 8강 진출 가능성을 키웠다.

이번 시즌 손흥민의 첫 챔피언스리그 골이다. 조별리그에서는 도움만 1개 기록했다.

지난달 2019 아시안컵을 끝내고 소속팀에 복귀한 손흥민은 리그에

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데 이어 이날까지 4경기 연속으로 골을 기록했다. 시즌 16번째 골이다.

여전히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강한 모습이었다. 과거 손흥민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0경기에서 무려 8골을 기록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합부르크 레버쿠젠 시절부터 도르트넴 유니폼을 입은 뒤에도 '도르트문트 킬러'의 면모를 유지했다.

도르트문트의 유니폼은 노란색과 검은색이 섞여 꿀벌을 연상하게 한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많은 골을 터뜨린 손흥민을 팬들이 '양봉업자'라고 부르는 이유다.

손흥민의 입구가 막중한 경기다. 특급 공격지원인 해리 케인과 델리 알리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불운의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는 손흥민이 대안이

고 기대에 부응했다. 손흥민은 후반 2분 안 베르통인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논스톱 오른발 슈트로 연결해 도르트문트의 골망을 흔들었다. 가볍게 방항한 비껴 균형을 깬다.

도르트문트전 통산 9번째 골이다. 초반 분위기는 팽팽했다. 도르트문트는 원정 경기임에도 분데스리가 1위, 조별리그 1위 통과 팀답게 맞불작전으로 나섰다.

제이든 산초를 중심으로 활발한 공격을 전개했다. 도르트넴의 공세에 수세로 물리면서도 적극적인 역습으로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았다.

도르트넴은 전반 7분 모우리의 기습적인 슈팅이 골포스트를 살짝 지나쳤다. 도르트문트는 전반 20분 악셀 비첸의 슈팅이 위력적이었다. 골키퍼 위고 요리스가 잘 막았다.

손흥민은 전반 36분 왼쪽 측면을 돌파해 사각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도르트넴이 전반 막판 위기를 맞았다. 자가두의 헤딩슈팅이 골이나 다름 없었지만 요리스가 침착하게 막았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후반 초반 손흥민이 0의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실책으로 안 베르통인이 왼쪽 측면에서 기회를 잡았고, 정확한 크로스로 손흥민의 골을 도왔다.

안 베르통인은 후반 38분 오리에의 크로스를 왼발 논스톱 슈트로 연결, 추가골을 터뜨렸다.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도르트넴은 3분 뒤 페르난도 요렌테의 헤딩골까지 터지면서 8강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도르트문트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해 2차전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도르트넴과 도르트문트는 다음달 6일 2차전을 치른다. 손흥민과 도르트넴의 도르트문트 원정이다.

뉴시스

“박항서 감독, 아버지 같은 분”...콩 푸엥 입단현장

K리그1 인천 정식 입단... “제자 입단식 방해할 수 없다” 단상 거부



왼쪽부터 박항서 감독, 응우옌 콩 푸엥, 이영진 코치

“박항서 감독은 아버지 같은 분이다. 베트남 선수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14일 인천 홀리데이인 송도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에 정식 입단 기자회견에 참석한 베트남 국가대표 공격수 응우옌 콩 푸엥(22)이 박항서 감독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박 감독도 제자 콩 푸엥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배려하며 박수를 받았다.

콩 푸엥은 자신이 한국행을 결심한 데는 박 감독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축구가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박항서 감독을 만나서 한국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됐고 많

이 배웠다”고 말했다.

“박 감독님은 한국 축구의 철학을 베트남에 접목시킨 분”이라며 “베트남 선수들을 박 감독님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있다. 선수들이 이쁠때 직접 와서 마사지를 해주고 치료도 해준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인사했다.

콩 푸엥은 박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국가대표에서 주전 공격수로 발돋움했다. 2016년 일본 프로축구 J리그 미토 홀리호크에서 6경기 무득점의 실패를 맛봤지만 이후 박 감독을 만나 실력을 크게 끌어올렸다. 168cm로 키는 작지만 빠른 스피드와 개인기를 무기로 베트남의 2018 아시안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축구선수권 준우승, 아

시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우승을 이끌었다.

박 감독도 제자를 추어올렸다. “베트남에서는 최고의 공격수다. 좁은 공간에서의 능력이 뛰어나다. 한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장점이 확실히 있다. 내 제자여서 그런게 아니라 직접 보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콩 푸엥은 미소를 지었다.

박 감독의 리더십은 다른 곳에서도 빛났다.

박 감독은 이날 콩 푸엥과 함께 단상에 올라 입단식을 치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입단식 직전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고 단상을 한사코 고사했다. 결국 기자회견 무대가 아닌 안영민 장내야구에서의 열거리에 앉아 회견을 지켜봤다.

박 감독은 입단식이 끝난 후 “콩 푸엥의 입단식인데 단상에 오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오늘 자리는 콩 푸엥의 입단식”이라며 “내가 뭐라고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신을 고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박 감독은 콩 푸엥을 붙잡고 통역원을 통해 3분 가량 대화를 나눴다. 콩 푸엥은 언거꾸 고개를 숙였다. 박 감독은 콩 푸엥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했다.

박항서 감독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자를 챙겼다.

뉴시스

“LA다저스, 2019시즌 최고 투수팀”...류현진 존재 마운드 영향

메이저리그 홈페이지 MLB닷컴이 LA 다저스를 2019시즌 최고의 마운드를 가진 팀으로 평가했다. 류현진(32)의 존재도 다저스의 마운드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MLB닷컴은 14일(한국시간) 통계 예측 시스템을 통해 “다저스 투수진이 경기당 3.87을 실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최소 실점이다.

상대의 득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투수진은 다저스의 가장 큰 무기다. MLB닷컴은 “다저스는 최근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최소 실점 1위에 올랐고 최근 4년 내내 최소 실점 5위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강한 투수진을 바탕으로 올해도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 전망이다.

올 시즌에도 다저스가 최강 마운드로 꼽히는 이유를 설명했다. 네 가지 이유 중 하나가 류현진의 잔류다. “다저스는 키플래이어 최완 2명 류현진, 클레이튼 커쇼와 재계약했다”고 짚었다.

류현진은 지난 시즌 뒤 FA 자격을 얻었으나 구단의 캘리포니아 오퍼를 수락했다. 커쇼는 2021년까지 3년 연장 계약에 합의해 다저스에 남았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캘리포니아 오퍼를 받아들여 팀에 남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류현진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82%이닝을 던졌지만 평균자책점 1.97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커쇼에 대해서는 “최고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평균 선발 투수



이상의 모습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량이 좋은 투수들을 많이 보유한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혔다. “커쇼와 워커 블러, 류현진, 마에다 겐타, 리치 힐 등 선발 투수 다섯 명은 평균자책점 4.00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로스 스트리플링, 윌리엄 유리아스 등도 있다고 언급했다.

英 언론, 손흥민 향해 찬사 “월드클래스”

“이보다 향상적 선수 본적 있나”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손흥민(도르트넴)을 찬양했다.

영국 ‘가디언’은 “손흥민의 치열한 러닝과 영리한 포워드 플레이가 도르트문트의 모든 문제를 발생하

게 한 시작이었다”며 골 장면을 소개했다.

‘인디펜던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로 가고 있다”고 했다.

‘BBC’는 “손흥민은 유럽에서 최고 선수 중 하나다. 월드클래스 선

수다. 월드 베스트에 선정돼야 한다”며 “이보다 향상적인 아시아 선수를 본 적이 있다. 정말 놀랍고 흥미롭다”고 극찬했다.

‘스카이스포츠’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11경기에서 9번째 골을 기록했다”며 도르트넴이 2010~2011시즌 이후 8시즌 만에 챔피언스리그 8강에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뉴시스

자연산 돌레길
Natural Stone Course

■ 실이 있는 지리산 돌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돌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남 구례군은 지리산오천, 칠새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